

1990년 말(馬)해에 부치는 글

오요한 / (사)한국동물보호협회의 이사

1990년 새해는 십이지간중 말의해이다. 말은 옛부터 소와 함께 인류에게 봉사해왔으나 현대는 자동차와 트랙터에 밀려 경마에서나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제주도 조랑말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지만, 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이땅에서 영원히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얘기이고, 정치도 잘 운영되어 말에 뽑이 나는 일이 없어야겠다. 옛부터 중국에서는 군신이도(道)를 잃으면 말에 뽑이 생기고, 부하가 상관을 불신하는등 나쁜정치의 길로 들어선때에도 말에게 뽑이 생긴다고 하였다. 런던의 대영박물관에 가보면 말의 뽑이 전시돼 있기도하다. 코뿔소와 맥과 함께 기계류인 말은 시신세(始新世)의 '헤나코더스'를 원조로 친다면 5천5백만년의 역사를 갖는 동물이 되는 셈이다.

'천마'(天馬), '용마', '한혈마'(汗血馬), '신마'등 말이 그 용맹성과 인류문명에 크게 이바지한 내용을 각종 역사서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유명한 역사서인 사마천의「사기(史記)」에는 '대원국(大苑國)의 최고의 명마가 천마이고 다음이 한혈마라고 쓰여져 있다. 또, 천마는 하루에 천리에서 만리사이를 달렸다고 전한다.

그리스 신화의 '천마'「페커사스」는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한다. '용마'는 옛 황제들이 타는 말로서 중국에서는 인덕(仁德)을 겸비했

다고 하며 황하의 정수(淨水)라고 전한다. '한혈마'는 하루 천리이상을 달리는 말이었는데 피와같은 땀을 흘렸다고 한다. 현존하는 포유동물중에는 하마가 붉은 땀을 흘리고 있으므로 혈한(血汗)이라고 한다. 중국 한나라의 무제는 중앙아시아의 월씨국(月氏國)에 무장을 보내 대원국(大苑國: 현재의 중앙아시아의 소련 우즈베크공화국의 철허가나분지)에서 '한혈마'또는 '천마'라고 하는 우수한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마침내 이명마를 입수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실크로드의 별명이 '천마들의 길'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이 서역의 명마는 현재의 아랍종(아라비아말: 고원형)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경마용 '사라브랫트'와도 혈연이있음이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는 옛날 서역지방의 용과 암말과의 사이에 태어난 말이 '천마'가 된다고 하였다. '호마(胡馬)라는 것은 초원형인 몽고말로서 일반적으로 중국의 북서방을 호(胡)라고 하기때문에 불리워진 이름으로 이지역은 현재의 이란이나 서부파키스탄지방이다. '과하마'(果下馬)라고 하는것은 아주 작은 말로서, 말을 타고 과수나무밑을 지나가면서 과일을 딸 수 있다는 말이다. 또 여러나라 그림속에는 '신마(神馬)의 그림을 찾아 볼 수 있다.

말의 어원은 우리말인 '말(馬)'과 만주어 '머림'등과 관계가 있다고 얼마전 출판회관에서 열렸던 세미나에서 어느 학자가 발표했던 바 있다. 미국영

화를 보다보면 야생마가 자주 등장하는데 실지로 한번도 사람손을 한번도 거치지않은 야생마란 없다. 왜냐하면 처음엔 스페인사람이 다음엔 영국인들이 미대륙으로 가져간것으로 가축으로 기르던 것이 뛰어나가 야생마가 된 것이다. 기제목 말과(馬科)의 동물로 현재 살아있는 것은 마속(馬屬) 다음이 아속(亞屬)이다.

[말 아속]몽고말. 가축말. 러시아 남부의 초원과 삼림에 살다가 1880년에 절멸한 초원터-반, 유럽 중. 동부의 삼림에 살다가 18세기말에 절멸한 삼림터-반등. [아시아 노새아속]아시아 중앙부. 즉, 이란으로부터 몽고. 티벳. 인도 서부까지의 사막지대에 분포하는 아시아 노새만을 포함한다. 더욱이나 본종에는 티벳의 키안몽고의 쿠-란(지계타이) 페르샤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등의 오나가등의 아종이 있지만 이를독립종으로 분류하는 학자도있다.

[노새아속]소말리아. 에리트리아. 누비아등의 야생노새와 가축의노새를 포함한다.[그레이버-얼룩말]소말리아. 이디오피아. 케냐북부에 분포하는 크레비-얼룩말만 포함된다. [얼룩말아속]케냐. 우간다로부터 남서아프리카. 로데시아에 걸쳐분포하는 사반나 얼룩말(보통 얼룩말)남서아프리카와 남아메분포하는 산얼룩말이 포함된다. 이와같이 마속의 야생종류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에만 있고 남북아메리카에는 한종류도 없다는것이 주목된다. 또, 3백만년-7백만년전의 선신세에 번성한 발가락 하나인 뿌리오히트브스속으로부터 진화된 것이 틀림없는데 이속은 아프리카나 유라시아에는 살고 있지 않았다는데서 주목되고 있다.

그옛날 유라시아와 북미는 현재 배령해협으로 갈라져있지만 태고에는 중신세, 선신세, 시신세를 거치면서 몇번인가 배령육교가 되어붙었다 떨어졌다하는 긴시간을 거치면서 현존하는 마속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옛날 자동차트랙터 역할로 생산에 종사했고 군대에선 기갑부대역할을 해온 말이 요즘엔 경마로 인류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다주고 있다.

경주용인 '사라브렛드'는 처음에 영국에서 사냥

용 품종이었는데 '아랍'(아라비아 말)말과 개량해서 현재 경주마왕이 됐다.

'앵그로노르마'종도 '아라비아말'과 비등한데 프랑스에서 스피드의 '사라브렛드'와 정력왕 '아라비아 말'을 교미시킨' 이상적인 품종이라고 한다.

이 세가지말을 교합시키면서 꾸준한 품종개량이 계속되었다. 한편, 미국의 '아메리카트롯터'의 성장과정을 살펴보자. 1492년 콜롬부스가 미대륙을 발견했을때 미대륙에는 한필의 말도 없었다. 미대륙 발견후 콜롬부스는 서인도군도에 상륙해 말30필을 상륙시켰다. 이 말들이 미대륙 말선조가 된다.

그후 17세기부터 유럽에서 미대륙으로 이민이 쇄도하게된다. 이시기에 대륙에 상륙한 말들은 양질의 풀이 무성한 대자연속에서 급속히 증가하여 갔다. 또한 미대륙으로 온 이민족들은 개척사업에 말을 이용해 짐을 나르게하고 밭을 갈게하는등 필요한 목장들을 늘려갔다. 이시대에 경마는 최대의 오락이었으며, 말은 재산목록의 으뜸이었다. 이러한 배경아래 스마트하고 씩씩한 말을 자랑하려는 더큰 욕망이 '사라브렛드'를 수입, 속력이나 정력 의상징인 '아메리카트롯터'를 낳게한 것이다. 자동차 이름으로 유명한 '포니'는 키가 작아 148cm이하짜리로 모든 환경에 잘적응하여 세계어느곳에서도 잘번식하는 재래종이다. '포니'는 키가 작아 짐을 등에 실어 내리기가 쉽고 도로가 엉망이라고해도 잘걸어다니기때문에 옛날부터 전세계적으로 많이 이용하여 왔다. 지금도 몽고의 유목생활에서 작업을 시키고 있는데 1944년 몽고지방을 여행중에 말타기를 무서워하던 필자도 평원을 지날때 이 '포니'신세를 진일이 생각난다. '포니'중에서도 작기로 유명한 것은 영국북방에 있는 세트랜드섬에 있는 키가 1m이하짜리와 아르헨티나에 60cm이하인 '웨라포니'라는 것이있다. 한국에서는 '제주조랑말'이 '포니'에 속한다.

올해는 말의해이다. 새롭게 밝아온 한해를 말과 같은 씩씩한 힘으로 우리모두 다함께 환경보전사업에 전진하자.*